

전남광주특별시장 與 5인 본경선... '총성 없는 전쟁' 돌입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마무리되면서 5인 본경선 진출자들 사이에 2주일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예비경선에서의 치열한 난타전 탓에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가운데 탈락자의 표심을 비롯해 권역별 민심과 당심(당원 표심)의 향배, 조직력과 인지도, 정책배심원의 실효성 등이 판세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8인-6인-5인, "결선 티켓을 잡아라...내가 적임"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19~20일 예비경선(권리당원 100% 투표) 결과, 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상 기호순) 예비후보 등 5명이 본경선에 오르고 정준호 후보가 탈락했다.

경선 주자는 당초 8명이었으나 경선불참에 반발해 4인 이계호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하고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이 중도사퇴하면서 6명으로 줄어든다. 이어 이날 1명이 탈락하면서 5명으로 압축됐다.

본경선은 4월3~5일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며,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4월12~14일 1·2위 결선 맞대결이 치러진다.

본선 진출자 5명의 평균연령은 65세로, 고향은 모두 전남이다. 출신 대학은 건국대(김영록), 전남대(강기정·민형배), 고려대(신정훈), 성균관대(주철현) 등 다양하다. 김 후보는 장관·국회의원을 지낸 현직 도지사, 강 후보는 3선 의원·청와대 수석 출신 광주시장, 민 후보는 구청장·청와대 비서관 출신 재선 국회의원, 신 후보는 농민운동가 출신 3선 중진 의원, 주 후보는 검사 출신 행정·입법 전문가다.

1호 공약은 김 후보는 '세계 유일 전주기 반도체 생태계 구축', 강 후보는 '특별 시민 수당' 지급, 주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균형 발전', 신 후보는 '반값 전기 요금', 민 후보는 '시민주권 정부'다.

행정통합 지원금 20조 활용을 두고는 김 후보는 '첨단 기업을 보듬을 거대한 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후보. 왼쪽부터 기호 1번 김영록, 기호 2번 강기정, 기호 4번 주철현, 기호 5번 신정훈, 기호 6번 민형배.

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 진출... 정준호 탈락
4월3~5일 본경선, 2주 간 정책 대결... 과열·혼탁 우려도
탈락자·권역별 표심, 조직력·인지도, 정책배심원 등 변수

업그릇 구축'을, 강 후보는 '3조원 시드머니'를, 주 후보는 '미래 먹거리와 균형 발전', 신 후보는 '민생·불균형 해소·미래에 3분의 1씩 투자'를, 민 후보는 '초점단기업 유치에 8할 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5인의 후보는 본경선 첫 주말을 맞아 전통시장과 종교시설, 지지선언 현장, 당원 간담회 등을 돌며 당심과 민심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 의대·부동산 문제-측근 비위 등 난타전 격화되나

본경선에서 예비경선 때의 이슈가 난타전으로 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TV 토론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이슈는 대략 5~6가지. 국립 전남 의대 소재지 논란과 공직자 거주지 문제, 과거 측근 비리 논란, 재임 기간 성적표, 동부권 소외론, '똥구름 공약' 논란 등이다.

이 중 국립 의대 문제는 지역갈등 양상

으로 변지며 경선 초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고, 나머지 문제들을 둘러싸고도 상호 비방과 날선 검증이 이어졌다. '무능론'과 함께 '맞장 토론' 제안도 나왔고, 공약의 현실가능성을 놓고는 뜨거운 신경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5인 체제 본경선에선 다자구도 속에서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일화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경쟁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진 않다. 과열된 비방전으로 핵심 현안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치혐오를 유발,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민심 왜곡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관계자는 "네거티브는 지지층 결집 효과를 있을 수 있지만, 종국에는 민주당의 주의를 해치는 독"이라며 "근거없는 비방에 대한 엄중한 패널티와 함께 유권자의

현명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중연형, 탈락자 권역별 민심, 정책배심원 변수

본경선 변수로는 우선, 합중연형이 떠오른다. 예비경선을 통해 일정 수준 당심 분석을 마친 후보 상태여서 전략적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경선 시작 전부터 가시화된 후보 간 '러브콜'이 예비경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성향과 삶의 궤적 등에 따라 연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와 전남 정치세력 간의 전략적 연대는 판을 흔들 기폭제로, 본경선에서 1차, 결선에서 2차 합중연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경선 불참자와 예비경선 탈락자의 표심이 어디로 흡수되느냐도 큰 변수고, 권역별 민심의 향배도 주목할 지점이다. 권리당원은 광주가 11만2000명, 전남이 19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권역별 유권자는 광주권이 158만, 동부권이 72만, 서부권이 44만명으로 권역별 편차가 적지 않다. 대다수 캠프에서는 동부권을 승부처로 꼽고 있다.

정책배심원제도 시험대에 오른다. 이번 경선에서 시민배심원제 대체제로 도입된 방식으로 단순한 통과 의례에 그칠지, 날카로운 질문으로 후보 자질을 검증하는 도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권역별 토론회는 전남 서부권(27일), 동부권(28일), 광주권(29일) 순으로 진행된다. /기동취재부

본선 첫 휴일, 민주 통합시장 후보들 민심 공략 본격화
교회·시장 등 지역 밀착 행보... 국회 일정 병행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5인이 본선 첫 휴일인 22일 지역 밀착 행보와 함께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선다. 국회의원 신분인 3명의 후보들은 지역과 국회 일정을 병행하는 등 승부러움을 이어간다.

김영록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지역 한 교회를 찾은 뒤 오후 2시 빛고을체육관 국회의원대권도 심사장을 방문한다. 이어 오후 3시 양동시장 상인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강기정 후보는 같은 날 오전 9시 고향인 고흥연락사무소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고흥·순천 등 두 곳의 교회를 찾는다. 오후에는 순천갑 지역 위원회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어 지역 조직 다지기에 나선다.

주철현 후보는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상경, 의정 활동에 집중한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조자기소 사건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표결 등의 일정이 있다.

신정훈 후보는 오전 8시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국밥집에서 상인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민심을 청취한 뒤 양림동으로 이동,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 일정 참석을 위해 상경한다.

민형배 후보는 오전 광산구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국회 본회의 일정 참석 차 서울로 향한다.

후보들은 휴일을 맞아 교회와 전통시장을 찾는 등 지역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 본회의 참석을 병행하며 본경선 초반 지지층 결집과 인지도 확장에 주력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 구도상 본선 결과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후보들이 본선 투표 전까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경선은 4월3~5일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진행된다. 과반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4월12~14일 1·2위 결선 맞대결을 치른다. /전광춘 기자

전남도, 올 한해 해양쓰레기 저감에 441억

전라남도는 올해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전년보다 56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1억 원을 들여 '발생-수거-처리'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쓰레기 현존량을 줄이는 순감소 정책을 추진한다.

전남은 전국 해안선의 44%, 도시의 64%를 보유한 지리적 특성상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4만 6천 톤으로 전국 최대 수준(56%)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단순 수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해양쓰레기 현존량을 줄이는 순감소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발생량(4만 6천

톤)을 상회하는 5만 2천 톤(발생량 대비 112%)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수거량이 발생량을 처음으로 앞지르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수거 목표를 5만 9천 톤으로 상향했다.

전남도는 ▲육·해상 발생원 관리 강화 ▲효율적 수거와 재활용 기반 구축 ▲도민 참여와 유권기관 협력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육·해상 발생원 관리를 강화해 해양폐기물 유입을 차단한다. 영산강 등 주요 하구에 쓰레기 차단막 설치 확대 해양쓰레기 해양 유입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건물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선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정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출처 불명 득표를 문자... 후보별 유불리 입장 '제각각' 3면

▶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잇단 발견... 정부 "변명의 여지 없다" 9면

지면 안내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서비스 분야 및 장점

고층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유리창 드론 청소

발전소·설비 청소

공장 외벽 청소

태양광 패널 청소

- 대상 : 아파트(준공중/관리, 유지보수 등), 오피스빌, 빌딩, 호텔, 병원, 대형카페 외부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 대상 :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린스(퓨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 대상 :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발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 대상 :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분진, 오염을 완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장비 비용 절감

- 대상 :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 오염도에 따라 차이 있음)
- 당시의 독성적인 퓨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 없는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수익실현 가능)

시공 전후 사진

정소 전 → 정소 후

정소 전 → 정소 후

정소 전 → 정소 후

정소 전 → 정소 후

정소 전 → 정소 후

문의 0507-1491-1677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80, 1층 101호

유한드론솔루션